

(참고자료-참조17)

NEWSIS 지방 > 광주/전남

[광주의 지도가 바뀐다] ②랜드마크 '터미널 복합화' 꿈틀...교통·유통·문화 한곳에

등록 2024.02.15 08:34:03 | 수정 2024.02.15 08:43:29



【광주=뉴스시스】이장우 기자 = 사진은 광주복합터미널 유스퀘어(J Square) 전경. 2018.07.18. |사진=광주터미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스시스】배성현 기자 = 광주시가 관운인 종합버스터미널을 교통과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건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종합버스터미널은 KTX개통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승객이 줄어 들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충 이전 계획을 인근 이마트 부지에서 터미널내 유스퀘어 문화관 부지로 급선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매일일보

HOME > 전국 > 서울충청

대전시,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수익성 확보 위해 해외 사례 벤치마킹

근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09.14 14:59

일본 버스터미널,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상업시설 견학

【매일일보 박동현 기자】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4박5일 일정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와 상업시설과 잘 어우러진 교통수병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여객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봤다.

일본 방문단을 대표한 대전시 양승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와 인구 등 도시여건이 유사한 하카타 등에서 대전에 도입 가능한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